

국별 리포트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737천km ²	G D P	3,723 억 달러(2010년)
인구	40.52 백만명(2010년)	1 인 당 GDP	9,190 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90(2010년 말)

- 아르헨티나는 총 인구 4천 만명 중 약 95%가 유럽계 이민 후손들로 구성된 백인 국가로,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의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는 농업강국이며,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임.
- 현 대통령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취임 당시 6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경기침체, 고용감소, 경제위기론 심화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였음. 그녀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남편이자 전 대통령(2003~07년 재임)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2010년 10월 사망함에 따라 금년도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지속적인 채무재조정 노력으로 지난 몇 년간 외채상환능력 관련지표가 꾸준히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외채잔액이 여전히 국제기준이나 동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과중한 수준임. 또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정책으로 시장 왜곡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8.7	6.8	0.9	8.5	5.3
재정수지/GDP	1.1	1.4	-0.6	0.2	-2.1
소비자물가상승률	8.8	8.6	6.3	10.5	12.8

자료: IMF, EIU

□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 진입

- 2001년 디폴트 선언에도 불구하고 폐소화 환율 인상, 국제원자재 및 1차 상품가격 상승 등에 의한 수출 호조로 2003년 이후 연평균 8.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외국인 투자유입 감소, 외환 및 주식시장 불안 현상 지속 등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 2009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수출국의 수요 급감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극심한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및 농산물 국제 시세 급락 등으로 주요 산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한편 정치적인 불안 및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국내의 투자가 급락하여, 경제성장률이 0.9%로 급락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들어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및 임금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특히 자동차 생산량은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의 수요증가에 따라 41%의 역대 최고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주택시장 활성화 및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대로 건설경기는 1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증가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연 평균 9.5%를 기록함.
-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 금리인상 등으로 인플레이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0년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공식 물가상승률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10.5%대를 기록함.
- 한편,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물가상승률 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실질물가상승률은 통계청(INDEC)의 발표보다 훨씬 높은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소폭 흑자 기록

- 재정수지는 금융거래세와 주요 수출상품인 1차 산품에 대한 수출세 등 한시 특별세 신설과 공공부채 디폴트 선언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축소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2008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수출세 급감과 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세수가 축소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증대와 높은 임금인상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증가와 재정지출 중 예산외항목인 기금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는 소폭 흑자를 기록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 농·축업, 석유/천연가스 등 1차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취약함.
- 수입대체산업화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전력, 가스, 도로 등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의 시장개입 경제정책 지속

- 전 키르츠네르 정부는 국가 자본주의(national capitalism)를 주창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을 지속하였으며, 신임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정부 또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음.

*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수출통제 실시하고 있는 등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인적자원이 비교적 양호하나 정부의 비정통적 경제 정책 추진으로 성장잠재력 하락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도 풍부함.
- 인구의 다수가 유럽계 백인인 국가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으며,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2.2%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성인 문맹률(2.2%), 초-중 대학교 및 대학원의 평균 취학률(88.6%) 등 교육수준과 평균수명(75세), 국민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유엔개발계획

(UNDP)의 2010년 인적개발지수가 세계 46위(한국 12위)로 45위인 칠레에 이어 중남미 최고 수준임.

- 풍부한 부존자원과 양호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선언 이후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비정통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및 친노조정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어려움

- 아르헨티나는 폐소화 목표 환율제 실시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발표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국내외 민간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마찰로 인해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는 노동법과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노조활동이 활발하여 생산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 정권의 친노조적인 정책으로 인해 투자매력도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

3. 대외경제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폐소화 환율인상과 국제원자재 및 1차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4-2008년 동안 흑자 기조가 유지됨.
- 2009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급감(-20%)하였으나, 수요급감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32%)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185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도 GDP대비 3.6%의 흑자를 기록함.

- 2010년에도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폐소화의 실질환율 인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내수 활성화로 인한 수입 급증 등으로 그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7,355	6,668	11,030	4,977	3,600
경 상 수 지 / GDP	2.8	2.0	3.6	1.3	1.0
상 품 수 지	13,457	15,423	18,527	14,628	14,433
수 출	55,982	70,019	55,669	68,519	81,193
수 입	42,525	54,596	37,142	53,891	66,760
외 환 보 유 액	46,116	46,369	48,025	52,231	55,060
총 외 채 잔 액	127,672	128,285	118,364	132,542	138,291
총 외 채 잔 액 / GDP	48.6	39.1	38.3	35.5	30.9
D. S. R.	13.1	10.8	14.5	10.8	9.2

자료: IFS, EIU

□ 외채상환능력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채규모는 여전히 과중한 상태

-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2005년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등 외채 경감 노력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일부 FDI의 재개, 수출 호조로 인한 외환 보유액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D.S.R. 등 외채 상환능력 관련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10년 6월에는 2005년 채무스왑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 채권 183억 달러에 대한 75% 원금 삭감 조건의 채무스왑을 실시하였고, 이중 66%인 121억 달러의 채무스왑에 성공하였음. 이로써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한 약 1,000억 달러의 정부채 중 92.4%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완료되었고, 아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채는 민간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채 약 60억 달러와 파리클럽 채권단에 대한 채무 약 70억 달러만 남게 되었음.
- 동 채무스왑 성공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총외채잔액이 국제기준이나 동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여전히 과중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 부

문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다만, 2010년 12월 파리클럽이 기존 노선을 수정하여 채무상환문제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었던 IMF실사에 대한 양보입장을 밝힘에 따라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이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7년 10월 대선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

- 2007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부인이자 상원의원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페르난데스 정권인 전 키르츠네르 정권의 정책을 모두 승계하였음.
- 취임 당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이상이였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 고용감소, 경제위기론 심화 등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으며, 2009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여소야대의 국면에 직면하게 됨.

□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사망으로 정치적 기반 약화

- 2010년 10월 전 대통령이자 남편인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음. 금년 10월 예정된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후보였던 키르츠네르가 사망함에 따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탈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차기 정권교체를 위해 연합정당을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사망 후 페르난데스 대통령에 대한 동정표 증가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정치적 기반 상실과 레임덕으로 인한 정권장악력 약화로 불안정한 정국 양상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사회동향

□ 사회불안 현상 지속

- 2008년 3월 정부의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 조치로 인해 전국적인 농민 시위가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중산층들도 고물가에 항의하며 시위하는 등 20~30%대로 추정되는 고인플레이와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 불안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최저 임금과 은퇴자 연금 지급액 인상 등을 단행했으나, 재정수지 악화로 향후 정부의 지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역내국가와 관계 강화에 주력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서 인접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미 좌파주의자인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가 2005년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키르츠네르 정부를 지원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강화가 이루어졌음.
-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과의 관계역시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중도좌파라는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져 온 무역 분쟁 등으로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으나, 현재 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의 관계개선 기대

-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2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간 경협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10년 초 중국이 아르헨티나산 대두유의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었으나, 2010년 7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대규모 경협 사업 추진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기대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2	D2
OECD	7등급	7등급
S&P	B-(stable)	B(stable)
Moody's	B3(stable)	B3(stable)
Fitch	RD	B(stable)

□ 채무재조정 성공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 2005년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성공으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S&P와 Moody's는 아르헨티나의 신규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에 대해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채무스왑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채권 183억 달러 중 66%인 121억 달러에 대한 채무스왑에 성공하였음.
- 신용평가기관인 S&P와 Fitch는 이러한 외채상환능력 개선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 S&P는 2010년 9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외채부

담경감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의 외화 장기채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2005년 이후 제한적인 디폴트(Restricted Default) 등급을 고수하였던 Fitch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을 근거로 2010년 7월 장기외화채 등급을 B로 상향조정함.

- 한편, Moody's는 2005년 채무재조정 이후 외화 장기채 신용등급을 Caa1에서 B3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 외채 상환 태도

□ 지속적인 채무재조정 협상으로 외채부담경감

- 2005년 6월 민간 채권자 76%가 참여한 채무스왑을 실시하여 대상채무 1,050억 달러 중 약 800억 달러에 대해 75%를 삭감하고 신규채권으로 교환하였음. 2010년 6월에도 121억 달러의 정부채에 대한 채무스왑에 성공하여 외채부담을 경감시킴.
- 그러나 금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불안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이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출이 외채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존함.

□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진전 양상

-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와의 협력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파리클럽 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은 그 동안 담보상태를 보여왔으나, 최근 파리클럽이 IMF 실사에 대한 양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채무협상이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은 통상 IMF와의 협약 체결 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나,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사태가 IMF의 잘못된 처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IMF실사를 거부해 옴.

- 그러나 금년 대선때까지 지속될 정국불안으로 협상이 단시일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파리클럽과의 채무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EXIM: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개별심사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02/15 (북한과의 수교 :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0), 투자보장협정('94), 범죄인 인도조약('95), 항공협정('96), 원자력협력협정('97)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78,207	494,269	909,449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914,772	672,257	794,607	식물성 물질(대두·사료), 동광
합 계	1,492,979	1,166,526	1,704,056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 50건, 163,801천달러

□ 경기회복에 따라 교역량 큰 폭 증가

-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교역량은 2002년 이후 매년 10~20%씩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양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교역량 또한 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수출은 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입 또한 18.3%

증가함. 이로 인해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던 대 아르헨티나 무역수지는 2010년 1.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말 기준 신규법인 투자 50건, 총 투자금액 1억 6,380만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페루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음. 투자자금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투자로 전체의 34%인 5,500만 달러에 이룸.

V. 종합 의견

- 아르헨티나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2009년에는 0.9% 성장에 그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0년 들어서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가격통제와 수출금지 정책 등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해 시장 왜곡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의 펀더멘탈은 취약한 상태임.
- 경기침체, 고용감소, 경제위기론 심화 등으로 페르난데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에 차기 대선의 유력한 당선 후보였던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201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채무재조정 이후에도 외채잔액이 국제기준이나 동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고, 파리클럽과의 채무협상이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선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단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전 등급(D2)을 유지코자 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